



## 거품 걷힌 e-book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?

책은 오랫동안 '종이'라는 아날로그적 물성物性을 기초로 존재한다고 여겨져왔다. 그것이 책의 전통적인 '이마고'였다. 종이를 모아서 묶어 놓은 형태를 상형화한 '冊'이라는 한자가 그것을 적절히 말해 준다. 그런데 e-book의 출현 이후 책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위협받기 시작했다. 종이 책은 갑자기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다. e-book의 생리를 빠르게 이해한 스티븐 킹의 업포 이후, 그 위협은 보다 실제화되었다.

지레 놀란 국내 출판사들은 벤처 열풍에 편승하여 e-book 업체와 손잡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. 사실 e-book은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들을 거의 모두 극복한다. 우선 종이책에 비해 제작비가 훨씬 덜 들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고, 업데이트가 용이하다. 그뿐만 아니라, 정가도 종이책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필프를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지도 않는다. 사람들은 곧 e-book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그런 진단은 거품이었던가? 2002년말 발행된 <국민독서실태조사>에 따르면 처음에 들려오던 풍문과는 달리, e-book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 (아래 표 참조)

전자책 사이트 이용률 (단위: %)

|            | 전체   | 성별   |      | 연령별  |      |      |      | 학력별  |      |      | 거주지 규모별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 |      | 남    | 여    | 20대  | 30대  | 40대  | 50대↑ | 중졸↓  | 고졸   | 대재↑  | 대도시     | 중소도시 | 읍면   |
| 사례수        | 1200 | 604  | 596  | 390  | 332  | 220  | 258  | 155  | 521  | 524  | 602     | 344  | 254  |
| e-book 이용  | 4.1  | 5.0  | 3.2  | 6.7  | 5.1  | 2.7  | 0.0  | 0.0  | 2.9  | 6.5  | 3.3     | 7.0  | 2.0  |
| e-book 비이용 | 56.2 | 63.4 | 48.8 | 81.0 | 66.6 | 48.2 | 12.0 | 3.9  | 47.8 | 80.0 | 62.6    | 53.5 | 44.5 |
| 인터넷 이용안함   | 39.8 | 31.6 | 48.0 | 12.3 | 28.3 | 49.1 | 88.0 | 96.1 | 49.3 | 13.5 | 34.1    | 39.5 | 53.5 |

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e-book 사이트 이용률은 4.1퍼센트로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인터넷 이용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. 이용 빈도에 대한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다. 매일 전자책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객은 설문에 응한 성인남녀의 2퍼센트에 불과하고 월 1회 미만 이용자는 49.9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e-book이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뚜렷한 반증이다. e-book이 이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e-book이 장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. 다른 설문에서 이용자들은 e-book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 '종류가 다양하지 않다', '책 검색이 힘들다', '오래 사용하면 눈이 아프다', '내용이 자세하지 않다' 등을 지적하고 있다. e-book 소설 포털 사이트인 ebook21(www.ebook21.com)의 이경철 이사는 e-book의 부진을, "e-book의 인지도가 아직 일반 독자들에게 낮고, 가독성 등 여러 측면에서 아직 종이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"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.

e-book은 물론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.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. 문제는, 종이책에 대한 사람들의 여전히 전한 애착이 의미하는 것을 e-book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.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고 각기의 특징이 상호 존중될 때 독자들은 흐뭇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책의 모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. **출판**

김도연 기자